

오직 믿음, 오직 향기를 보여준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복음으로 여는 로마서-

창세기 15:6, 로마서 1:17

정운돈 목사님

* **창15: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 **롬1:17**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준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고 불신앙하며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수만 가지 고통을 당하며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므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모든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봉사, 또한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영육 간의 절대불가침의 부분도 자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떠한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후대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힘겹고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갈뻔하고 힘겨워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직 하나님께 그러한 문제를 주시는 절대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이면적이지,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레미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만민 앞에 증거할 수 있는 말씀성취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가는 말씀 : 영적 승상에 대한 태도와 복음적 관조

이런 주는 스승의 주권자이 교사자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면 자녀들에게 교육상 반드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선생님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엄마와 아버지 더 중요하다고 답변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녀들에게 선생님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여 가르칩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깊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므로 때로는 잔소리라 될 수도 있고 틀리거나 무식한 말을 할 때도 있으며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다. 반면에 선생님들은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식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스승의 이야기, 선배의 이야기, 그리고 그중에서라도 특히 복사님의 이야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고만 때문이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인간이 가진 원죄의 뿌리가 바로 고만이라고 말하였다. 인간은 누군기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생각과 심령을 근본적인 원죄로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아무리 말을 잘 들으라고 해도 듣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원죄를 가졌기에 스스로에게 전혀 회망이 없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대로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나쁜 것이나 망할 일은 스스로 너무나 잘 행한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기준이 되는 캐논(Canon)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 영혼 깊은 곳과 무의식, 잠재의식에 이르기까지 24시간 내 새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속아 놀고 고만과 불신앙, 불순종으로 인하여 곧바로 망할 자리에 서게 된다. 교회가 가진 평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복음을 배우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목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복사의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한, 성도들은 목사가 다소 늦고 부족할 지라도 순종해야 한다. 과거 권투선수 출신이었던 어떤 목사의 일화가 있다. 그 목사는 자신의 스승이던 토도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시험하기를 꼭박 받아야 한다고 표현하였다. 권투수가 그 스퍼링을 할 때 상대를 이기게 하려고 치열하게 치고받는 것처럼 목사가 설교나 권면을 통해 성도들을 강하게 다루는 것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라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함이다. 목사의 직적이 이쁘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영적인 스퍼링으로 받아들이어야 한다. 세상과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속제를 통해 영적으로 더 성장하도록 성명하도록 훈련하신다. 성도들은 항상 겸손하고 좋은 학생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 자체가 겸손함의 표현이며 가장 복음적인 태도이다. 그러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늘 비판하고 중언무언 나쁜 잔판 찾아내고 있다. 학술적인 논문을 쓰거나 실험과 연구를 할 때, 혹은 부수진 기계를 고칠 때는 철저하게 의심하고 무엇이 틀렸는지, 인용이 잘못되었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통째로 지식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 복화자가 설교 중에 인용한 통째나 이름이 잘못 틀릴 수도 있고, 인터넷을 찾아보면 금방 탄로 날 오류나 과장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죄를 지으면 눈을 뱉어 버리라고나 손을 얹자 버리라는 식의 과장법을 사용하셨다. 이는 그 메시지가 가진 영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강단에서 작은 응답을 마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처럼 과장하여 설교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성도들이 자각을 받아 더 큰 믿음의 응답을 누리게 하려는 목회적 중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도들은 지혜로운 학생이 되어 설교의 문자적 오류를 따지기도 하고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 디모데와 디도처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성장하여 이들을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훈련이 잘된 사람으로 사랑받고 칭찬받아야 한다. 직장생활에서 더 마찬가지이다. 한 청년이 지난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에서 이번 여름방학 때도 다시와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갈지 말지를 고민하다가, 그것이 바로 성공한 것이라고 맹주 했다. 우리는 어디서든 다시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일을 하는 척만 하거나 평계를 때려 책인고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지 못한다. 우리는 말은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부모나 스승, 복화자에게 지식을 받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름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유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결코 회복할 수 없다.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으나 사단에게 속아 모두 빼앗긴 것이다. 오렐과 다미엘은 포로와 노예의 신분으로 고된 생활을 하면서도 일이 힘들더라도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물러가지 않았다. 그들은 말건지 일터에 120%의 노력을 기울였다. 많은 사람은 꼭 해야 할 일의 70~80%만 겨우 해놓고 원망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사와 조공을 당한다. 우리는 복신앙의 자리로 떠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향기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 300%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부부 간에 복종하고, 성도 간에 이해하며 기도하고 기다려 주는 삶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와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신자들이 먼저 알아본다. 과거 학창시절에 공부를 아주 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시절 선생님들은 그 교무실로 불려 점수를 체크하게 하거나 중요한 일을 맡기셨다. 대학교 때도 교수님은 개인 신앙생활이나 비빌이 담긴 성적책에 의무를 맡기셨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금만 착하고 성실하게 출퇴근시간같은 기본만 잘 지켜도 세상은 인정해 준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는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새벽에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성실하게 일했다. 사장이 너무 기뻐하여 집을 사주기도 했다. 반면에 주변에서 차라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평을 듣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남을 돕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사

람 앞에 향기로운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길 축원한다.

서론 : 오직 믿음의 외와 종교개혁의 역사적 흐름

1) 이브라함의 믿음과 이신칭의의 복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 기 약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고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율법을 전한 모세보다 500여년이나 앞선 조상 아브라함이 이미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정립한 책이 바로 로마서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포한다.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 대속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이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 양,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우리에게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셨으며 세계복화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2) 불신앙의 자유와 온전한 믿음의 삶 로마서에 따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소한 일조차도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해야 한다. 전지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근심, 걱정을 조금도 할 필요가 없는지, 늘 인상을 쓰고 불안해하며 걱정하고 감상하지 못하는 삶은 실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이 아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의 뿌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음을 확신해야 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인생의 모든 행복이 포함되어 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으며, 사랑하고 기다려 줄 수 있다. 나아가 분별이 있는 곳에서 회개를 이루고 화평을 도모할 수 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오직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정치, 경제, 가정 생활을 비롯해 부모와 자녀의 역할까지 모든 삶의 영역을 온전히 승리하며 정복할 수 있다.

3) 루터의 종교개혁과 연속설의 허구성 과거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역시 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깊이 갈등하며 고향을 자처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셨다는 예루살렘의 계단을 로마로 끌고와 그 계단을 무릎으로 가이오르며 고해성사를 하던 죄가 담장한다는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쳤다. 그 때 루터가 무릎을 깨뜨려서 계단을 기어오르던 중, 자신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의했던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말씀이 버려질 스쳤다. 구원은 인간의 고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성경말씀이 깨닫힌 것이다. 이에 루터는 비성경적인 행위를 멈추고 비텐베르크 성 고해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며 종교개혁의 가치를 들었다. 당시 로마가톨릭이 주장한 가장 심각한 오류 중 하나는 연속설(連續說)이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단계인 연옥에 머물며 회개할 기회를 얻는다는 허구의 교리였다. 가톨릭은 지상에 남은 자들이 연옥에 있는 부모를 위해 헌금하고 봉사하며 성당에 예물을 드리면 헌금에 따라 저지르는 소리와 함께 연옥의 영혼이 죄를 사함 받고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가르쳤다. 가톨릭교회는 이 연속설을 앞세워 엄청난 교회의 재정을 끌어모았고, 당시 사제들은 연옥에 관한 설교를 남발하였다. 성경을 연구할수록 교황과 사제들의 가르침이 성경과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깨닫는 루터는 사제들과 교황을 향해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하며 이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반박문을 통해 엄히 고하였다.

4) 종교개혁의 역사적 흐름과 전도운동의 정체성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단독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 믿음의 스승과 신배들의 역사적 흐름이 선행되어 있었다. 루터보다 조금 앞서 테시테리우스 에라스무스(Erasmus)는 로마 가톨릭의 변질을 적시하고 성경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히브리어와 헬라어 사본들을 철저히 조사하였다. 당시 가톨릭은 오직 라틴어 성경만을 사용하게 제한했으나 에라스무스는 원어 사본들을 고증하고 정리하여 1516년에 신약성서를 출간하였다. 루터는 이 신배의 언어적, 학문적 발판 위에서 일어난 1517년에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보다 100년 전 체코에서는 얀 후스(Jan Hus)가 가톨릭의 교리를 비판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다. 회개를 당해 순교하였다. 1300년 대 후반 영국에서는 존 윌클리프(John Wycliffe)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며 종교개혁의 선구자 역할을 감당하였다. 루터의 개혁은 이처럼 성경을 위해 복음을 걸었던 영적 선배들의 흐름 속에서 완성된 것이다. 우리는 이 역사와 선배, 스승의 흐름을 제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 거대한 개혁의 흐름 속에서 장로교가 세워졌고, 루터와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이 확립되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전개하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성경적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신앙의 뿌리와 정체성을 명확히 알 때 비로소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된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 순종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10:17)”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높이를 깊이 깨닫고 들을 때 말씀 중대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5) 영적 삶의 전수와 24시간 ‘오직 의인’의 비밀 매주 주일 저녁마다 참사랑교회 3천 제자운동을 위한 핵심요인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성도들에게 지난 한 주간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서 ‘오직 예수의 절가’ 몇 점이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라고 권면하였다. 양국 세계화강인 한국 선수들은 9점이나 10점을 연속으로 맞추지 못하고 7-8점을 쏘면 결코 매달을 딸 수 없다. 학업에서는 60점만 넘겨도 과락을 면하고 학과를 통과할 수 있지만, 영적 세계와 신앙의 영역에서는 C나 D학점을 머물러 있다면 영적 사막으로 나아갈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 끊임없이 A+의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만 석사, 박사과 같은 영적 지도자의 문이 열리고 영적 사막의 미래가 열리는 것이다. 세상 공부와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영적인 사막지대의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의 많은 성도에게 지난주 영적생활과 학업, 기도생활을 점수로 매겨보라 하면 질문이 거듭될수록 점수가 30~40점대로 뚝뚝 떨어진다. 인생의 영적생활, 건강관리, 인간관계가 늘 30~40점에 머물러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제2:10)”고 말씀하셨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밀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 하루 중에 단 10초만이라도 세상 물정이나 염려,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예수님은 진정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깊이 고백해 보라. 이 단 10초의 집중이 쌓이면 인생의 모든 영적 흐름이 완전히 바뀐다.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기도가 답이 안 된다고 하지만, 평생 동안 이 고백 한 번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기분을 쓰거나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6)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세계복음화의 소명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1:17)”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문제를 불신앙이 아닌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의심하고 믿는 자는 정죄되었으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롬4:23)”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주만물을 손작간에 창조하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당면한 갈등이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단 0.1초 만에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결해 주시길 않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영단, 그리고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성도들이 세상의 불신앙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중대한 축복을 누리 237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다. 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고만하며 부모나 스승, 목사의 권면에도 귀를 닫고 대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과 만민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는가.

7) 로마서의 참된 본질과 세계복음화의 모델 신학교시절 교수님께서 로마서를 100번 읽으라고 하셨다. 로마서 본질이 있던 학이에는 모든 동기 신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서도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로마서를 읽을 정도였다. 나 역시 필사적으로 읽었으나 70년 밖에 읽지 못했고, 솔직히 읽으면서도 그 깊은 영적 의미를 명확히 깨닫지 못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고민하던 중 니중애야 비로소 로마서의 참된 본질을 알게 되었다. 로마서는 단순한 신학적 논리나 도덕적인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책이 아니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인물들은 한 사람과 삶을 일치시키며 ‘오직 믿음’으로 살았고, 현재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그들처럼 살아가라고 권면한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를 살리고 그 세계를 치유하며, 237나라와 5천 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내 삶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성도는 오직 믿음과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삶에 방향을 맞추어야 한다. 그 생생한 모델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다.

8) 신학자들이 증언하는 로마서의 위대함 가치 역사적으로 위대한 신학자들은 로마서의 가치를 일관되게 찬양하였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는 신앙성경 중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라고 평하였다.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타인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기를 때문이다. 진짜 복음을 깨닫는 자는 세상의 이들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게 된다. 종교개혁을 완성한 존 칼빈 역시 “로마서는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T.W. 멘슨(Menson)은 그의 저서에서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완벽한 요약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이 가장 마음에 와 닿는다. 로마서 안에는 구원의 신학, 성도의 삶, 전도자의 삶, 그리고 로마서 16

장 인물들의 결론인 세계복음화까지 기독교의 모든 핵심이 완벽하게 요약되어 있다. 성도들은 이 오직 믿음의 비밀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9) 이신칭의의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의 발원 우리 교단 뿐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에서 널리 존경받는 서철원 박사는 그의 저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통해 종교개혁의 근본 진리이자 최고의 교리가 바로 '이신칭의(以信稱義)'라고 설명했다. 즉, 인간의 행위라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진리이다.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뿐이며, 인간의 도덕적 선행이나 율법의 철저한 준행은 구원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 서철원 박사는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유학한 뒤,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저명한 석학이다. 그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명쾌하게 정리한 것처럼, 구원의 보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하나에만 존재한다.

10)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밑거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질이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연결된 이름으로만 여길 뿐,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더라'는 교백의 당위성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히 믿어야 한다.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만 했는가?"라는 질문에 세상의 많은 신자는 올바른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저 왕 같, 잘 선지자, 잘 제사장으로 기쁨부음을 받았다는 지식에 그친다. 구약성경이 온통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그들에게 기쁨을 부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문제'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인간을 멸망으로 몰고 가는 사단의 권세, 죄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 위해 예수님이 영적 삼위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11) 기쁨부음의 참된 의미 : 그리스도의 항거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쁨부음 받은 자를 뜻하지만 구약시대에서 사용된 그 기쁨의 실체는 평범한 기쁨이 아니라 지극히 항거로운 '항승'였다. 하나님께서 기쁨부음의 의식에 항승을 사용하신 이유는 분명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거를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구원받은 믿음을 뿐 삶의 현장에서는 무질서하고 불신자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이러한 불신앙의 상태를 가리켜 복음을 '만능'으로 바꾼 '방종의 삶'이라고 부른다. 복음의 본질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는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복음을 붙안 전제해 알면 삶 속에서도 불완전한 결과와 부작용이 속출한다. 사람은 그 행위의 열매를 보면 그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법이다.

12) 전도자의 주업과 부업의 인생 결론 하나님은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완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흠 없는 항거의 열매를 발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전도자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 세계복음화이다. 인생의 목적을 굳이 멀리서 찾기는 필요가 없다. 성경은 명백히 선포한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다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10:31)"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절대적인 사실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이 세계복음화의 언어에 인생의 방향을 맞출 뿐, 우리의 경제와 건강과 삶의 모든 배경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따로오게 되어 있다. 세상의 생업과 직업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부업일 뿐이다. 우리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본업은 오직 세계복음화임을 확신해야 한다.

1. 로마서에 담겨진 믿음과 복음적인 삶(항거로운 삶)

(1) 오직 복음의 능력과 화평의 명대

(2) 세상의 방법과 오직 복음의 차이 로마서는 오직 복음에 대하여 명확히 말씀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나 선행, 혹은 자기의 지식과 철학을 동원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과 사주팔자, 재앙과 저주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 또한 무속과 절을, 우상을 의지하여 인간을 괴롭히는 영적인 문제와 귀신문제, 가위불행, 그리고 사고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의 답을 얻으려 방황한다. 오늘날 발생하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미국과 중국의 회담 등 국제적인 갈등 역시 본질적으로는 세계복음화가 아닌 오직 자기의 이익과 돈, 패권을 차지하려는 이기적인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세계복음화는 나중심을 벗어나 원수 같은 이웃까지 모두 살려 복의 군인이 되게 만드는 역사이다. 세상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나 혼자, 나 나만 잘 먹고 잘 살며 패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이기심 때문이며, 그 탐욕의 결과는 결국 패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갈등의 이면에는 인간을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드는 사단이 강력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5:9)"라고 말씀한다. 인간을 갈등과 분쟁으로 몰고 가는 모든 배경에는 정사와 권세, 이들의 세상을 주관하는 흑암세력과 사단의 권세가 존재하므로 오직 복음으로 사단의 세력을 박살 내지 않고는 참된 평화가 결코 올 수 없다. 세상의 권력이 나 부기, 원자폭탄이나 미사일로는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으며, 오직 영적인 비밀인 복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

(3) 시대의 랜드마크와 영적 명대 성도는 기도를 통해 현장 곳곳에 영적인 랜드마크인 광대를 세워야 한다. 원래 인간은 영적으로 언약하고 부추여진 전 세계적인 랜드마크나 명대가 될 수 없고 내세를 위한 작품도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적 신분을 바꾸어 주시면 복의 군인이자 멋진 존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 안에서 대단한 영적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딱 한 번만 제대로 체험하면 인생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다.

(4) 성경의 역사로 인도받은 쉬운 선교 선교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인도받으면 지극히 쉬운 일이다. 당장 다음 주에 예정된 일본 히로시마 선교 역시 히로시마 성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을 예약하고 비행기 표를 끊으면 갈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이다. 현지 선교 사남과 소통하여 일정을 조율하고, 구마모토 선사님과 연결되어 함께 회전초밥을 먹는 과정에서 선교의 문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열린다. 오는 9월에 진행될 아르메니아 선교 역시 보방 선교를 15년 이상 지속하신 목사님이 이미 모든 선교의 문들을 다 열어 놓으셨다. 당회로 보고된 바와 같이 아르메니아인들은 자신들이 노아의 후손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며,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이다. 현지자비서 복음을 너무나 사랑하여 이미 모든 선교적 기반이 닦여 있으므로, 청교님들의 허락을 받아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지극히 쉬운 여정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하신 말씀대로, 과거에 다녀온 중흥 선교처럼 비행기 표를 끊고 호텔을 잡은 뒤 목사님을 따라나서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처럼 성경의 역사가 성도들의 모든 삶과 선교행적 속에 계속해서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한다.

(5) 오직 믿음의 법과 온전한 구원의 축복 이 모든 축복의 시작은 예수가 내 인생과 삶의 진정한 주인이자 왕이시며, 나는 황제를 살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중심에서 출발한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을 비판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쏟아내거나 짜증낼 내지 않으며,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감사함으로 영적 상태를 유지한다. 하나님은 이처럼 비판과 불평이 없는 사람을 비로소 가지 있게 쓰시기 시작하신다. 성도는 세상의 아무도 할 수 없는 일("Nobody")을 오직 믿음으로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므로, 이 언약을 굳게 잡아야 한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으며,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인간의 자랑할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 마귀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완전히 확증하셨다. 십자가의 보혈과 화해제물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보장받았다. 그리하여 성도는 마지막 때에 홀연히 부활하게 변화되어 능지되 않고 전교프리지도 없으며, 아프거나 죽지도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 이 엄청난 언약과 축복이 이미 보장되어 있으므로 인생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모두 내버려야 한다. 성경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하였으므로(요일1:18),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놓고 영원한 축복 속으로 걸어가야 한다.

(6) 불신앙의 닳을 지르는 가위 찬누가 과거에 매형과 크게 다투면서 "당신은 집안일이나 해라,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큰소리를 쳤던 일화가 있다. 당시 매형은 주식투자로 엄청난 돈을 벌던 상황이었기에 누나에게 기가이 그렇게 하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누나는 돌연 마음을 바꿔 "큰 형님모함(자녀들)의 닳이 내려져 있어서 움직이지 수 없다"라며 매형을 대었다. 이 예화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리 엄청난 응답과 축복의 복을 보장받았을지라도 마음속에 불신앙과 불평, 부정적인 생각, 불순종의 닳을 무수히 내리고 있다면 영적으로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성도들은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안 좋은 영적 상태를 '믿음의 가위'로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고감히 나아가야 한다.

2) 거룩한 산 제물과 항거로운 삶의 기준

(1) 거룩한 산 제물의 영적 예배 성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대로 몸을 하나님께 기쁘게 하

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최고의 헌신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 몸을 가지고 직접 나오는 것이다. 코로나시대는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으나, 영적 위기가 끝난 지금은 반드시 성전에 직접 나와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나아가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움직여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도를 위해 헌신하며,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실제적인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

(2) 그리스도인의 197지 항거로운 실천(롬12:10-21) 로마서는 성도가 도전해야 할 복음적 이고 항거로운 삶의 모습 19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말씀은 불신자가 자신이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선한 내용들이다. 예수가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된 성도라면 이러한 삶의 실천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10절부터 기록된 핵심성령은 다음과 같다. 성도인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남을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는 교만함으로 인해 상대를 만나자마자 반말을 하거나 무시하려는 이들이 있으나, 이는 창세기 3장의 원죄에서 비롯된 교만이며 사단의 역사에 속는 것이므로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다. 성도는 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뜨거운 영적 열심을 품고 그 더불어 화복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때는 하나님의 시편을 바라보며 오래 참아야 한다.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을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조문과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상황에 따라 일회일변하는 것은 올바른 인내의 태도가 아니다. 나아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며, 나를 배회하고 괴롭히는 자를 도리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마음을 같이해야 한다. 허영심을 버려 누가 더 마음에 두지 말고 낮은 태 지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며 교만하게 행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 성도는 이 19가지 실천사항을 복음적 기준으로 삼아 자신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만약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자꾸만 갈등이 생긴다면 주님과 영적으로 멀어졌다는 증거이며, 영적 접수가 10점, 20점, 30점 밖에 되지 않는 지극히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복음적 중심이 지기 쉬워지고 온전한 누르디만된 영적 접수가 9점, 10점으로 올라선 것이며, 이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의 문과 귀한 만남의 문이 사방에서 열리기 시작한다. 현장에는 나와 생각이 틀린 사람,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 배신자, 원수, 혹은 곤련히 미운 사람 등 다양한 인간관계의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죄사함을 받은 귀한 자녀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회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한 말씀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 삶 속에서 증명되는 믿음이 있으며, 세상 환경에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는 항거로운 삶의 믿음이 명백히 존재한다.

2.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보여준 믿음과 항거

(1) 로마를 살린 소수의 제자들과 문화적 배경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인물들은 온전한 믿음과 항거로운 삶을 완전히 이루어 로마까지 살려내 주역들이다. 많은 사람보다 복음의 믿이 되고,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타인에게 사랑을 베푸는 소수의 전도자가 현장에는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핵심 제자들은 소수만 일어날지라도 참사랑교회의 3천 제자운동이 성취되고, 우리 민족이 세계 237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우뚝 서게 된다. 이를 위하여 반드시 이 복음 운동에 생을 건 40만 제자, 1천만 제자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 세계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는 민족적 바탕과 선교적 환경을 사방에서 다져 나가고 계신다.

(2) 로마서 16장 인물들의 별명과 구체적 사역 사도 바울은 로마복음화의 주역이 된 핵심제자들에 각각의 사역에 걸맞은 명의로써 별명을 지어 주셨다.

(3) 뱀뱀(보호자) : 로마서 16장 1절에 언급된 뱀뱀은 깊은 요모한 로마서 편지를 목사님으로 부터 신중하게 전달받아 당시 영적 엘리트들이 가득했던 로마 현장까지 안전하게 전달한 여성 사무원이었다. 그녀는 복음사역과 전도자를 온전히 지켜낸 든든한 보호자였다. 성도들은 현장에서 전도자의 걸음을 돕는 뱀뱀과 같은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4) 브리스기와 아둘라(동역자) :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등장하는 브리스기와 아둘라 부부는 바울의 영원한 동역자였다. 이들은 담임목회자의 전도사역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몸숨과 목이라든가 기가이 내용을 만큼 헌신적인 공적자였다. 목회자 앞에서 순종하는 척하다가 뒤에 가서는 땀소리를 흘려 불신앙을 심는 자들은 전도운동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세계복음화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중직자와 후대로 서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의 발자취이다.

(5) 에베네데와 알비리아(사랑하는 자) : 로마서 16장 5절의 에베네데와 8절의 알비리아는 '사랑하는 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성도들 중에는 보기만 해도 깊은 영적 사랑이 솟아나고 조건 없이 사랑스러운 이들이 존재한다.

(6) 마리아와 바사(많은 수고하는 자) : 로마서 16장 6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마리아와 바사는 '많은 수고하는 자'로 일컬어진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영적 성장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전 식당에서 목욕과 헌신하고, 설거지를 도맡아 하며, 예배를 위해 찬양본주와 악기로 섬기는 수많은 성도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있기 때문이다. 아열 직후 서울에 살며 여덟 번이나 아사를 다녔고 수많은 교회를 거쳤으며, 램턴트들이 스스로 악기를 배워서 금요기도회와 주일대예배의 베이스와 드럼을 온전히 연주하며 찬양을 주도하는 교회든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청교신 램턴트들이 스스로 배워서 모든 예배의 음악적 수고를 기쁨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자 미래의 역사를 바꾸는 사역이다. 자신의 본업에서 이룸도 없이 믿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오늘의 참사랑교회가 존재한다. 이 소중한 수고를 발판삼아 3천 제자운동을 이루고, 237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성전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7)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친척) : 로마서 16장 7절에 나오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이었다. 세상의 사업이나 교회의 개혁이나 초기에는 언제나 가족과 친척들의 헌신적인 지지와 물질적인 도움이 가장 큰 발판이 된다. 조그만 육신의 혈연을 넘어 복음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다.

(8) 아벨라(인정받은 자) : 로마서 16장 10절의 아벨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인정받은 자'였다. 우리 모든 성도 역시 현장과 교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9) 가이오(은 교회의 식주인/돌보는 자) : 로마서 16장 23절에 기록된 가이오는 성경 개정 전에는 '식주인'으로 개정 후에는 '돌보는 자'로 번역되었다. 그는 단 하나의 지역교회가 아니라, '은 교회의 전도사역을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축복을 누렸다. 어찌 우리 교회가 모든 이들로부터 뜻밖의 많은 십일조 헌금이 입금되었다. 사역을 확실히 하며, 사모의 남동생이 주식투자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올린 뒤 우리 교회에 감사함으로 대규모 십일조를 봉헌한 것이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중심을 담아 선교하고 성전을 위해 건축헌금을 아낌없이 드려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거나 망한 역사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다윗 왕은 국가의 재정을 전적으로 다져 성전건축을 예비했고, 유림의 대성당들 역시 비록 면적부담과 같은 비정경적 오류는 있었을지라도 수많은 성도의 엄청난 재정과 헌신을 바탕으로 융창하게 세워졌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사면 주님께서 넘치도록 믿의 경제를 채워 주실 것이다. 우리 우리는 현재의 성정을 넘어 이보다 최소 10배 이상 큰 대형성전을 건축하여 세계복음화의 요람지라 RUTC 인재양성소를 완성해야 한다. 만약 다른 이들이 동참하지 못한다면 나 혼자서라도 이 경제적 응답을 다 받아 성정을 짓겠다는 결단으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 장로님들은 노화와 초회, 교단 전체의 전도사역을 전전후로 후원할 수 있는 은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우리 성도들이 은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멋지게 담당하기를 축원한다.

결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오직 완전한 믿음과 오직 그리스도의 항거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민족, 나아가 세계 237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내야 한다. 믿음과 삶을 일치시켜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에 복의 군인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될 응답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경영하는 산업과 직장현장 위에, 특별히 미래를 열어준 후대 램턴트들 위에, 우리 참사랑교회와 교단, 그리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위에 이 영광스러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로마서 16장 제자들에게 부여하셨던 응답과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